

# 樞密公派大宗會 理事會開催



△2015.3.18. 추밀공파대중회 이사회를 개최하다.

지난 3월 18일 추밀공파대중회(회장 권경석)은 지난해 임원개선 이후 처음으로 서울 용두동 모 음식점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권영빈 사무국장이 성원보고하고 상례 행사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님 묘소를 향하여 망배를 올리고 상음례 후 신임 회장은 이사 권의철, 권보근, 권태영, 권계주, 권인순씨와 지역대표 권영길, 권영갑, 권광택씨에게 선임장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권경석회장은 인사말에서 추밀공파(樞密公派)는 그동안 역대회장님들이 추원보분의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온 점 감사드리며 본인에게 지난해 회장(會長)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사양하다가 안동권씨 1/3이상을 접하고 있는 대중회가 회관(會館)도 없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누가 해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본인이 회장을 맡아 멸사봉공(滅私奉公)해야

겠다고 결심하고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대중회(大宗會)가 지향(指向)해야 할 목표(目標)는 회관(會館)을 마련하여 정상적 운영(運營)의 기반(基盤)을 닦고, 예의범절(禮儀凡節)이 퇴락(頹落)해가는 현시대에 선조(先祖)님에 대한 숭조정신(崇祖精神)을 더욱더 깊이 되새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목표는 회장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사(理事)님들과 종원(宗員)들로 구성된 지파중중(支派宗中)의 적극적인 성원(聲援)이 있어야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다.

부외의안 1호는 대중회의 활성화(活性化)를 위해서 많은 젊은 인재(人才)를 영입(迎入)하고 회장을 비롯한 이사 회비를 인상하되 회장은 년회비 100만원을 납입하고 회관마련에 일조키로 하며 이사는 1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호 의안은 파조인 추밀공(樞密公)과



△권경석 회장이 권영빈 이사에게 선임장을 수여하다.

충헌공(忠憲公) 설단지(設壇地)가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안에 있는데 이 지역은 추밀공의 7세손인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중종 토지를 위 중종에서 승인하에 설단하면서 추밀공 실기를 편찬하고 “花山府院君宗中에서 왜히 그 부지를 제공(提供)하였다. 이는 지극한 崇祖報本之念의 소치”라고 하였는데 급 3월 화산부원군중종에서 매입을 하던가 토지사용료 등 년 200만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사회(理事會)는 회장단(會長團)에 위임하였다.

2015년도 새로 구성된 이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權亨鮮, 權亨桓 명예회장 權赫昇 회장 權景哲 이사 權炳善, 權五星, 權俊植, 權正憲, 權學夫, 權赫鳳, 權泰安, 權學珍, 權學邦, 權學常, 權學本, 權五鉉, 權五明, 權免集, 權甫根, 權赫彩, 權學周, 權榮昶, 權義結, 權晳宣, 權公範, 權泰永, 權虞植, 權鎭澤, 權鎬俊, 權鎬春, 權桂周, 權弘求, 權仁亨

감사 權炳文, 權五敦

지역대표 權容植, 權五蒼, 權學甲, 權大吉, 權學傑, 權五成, 權忠和, 權光澤, 權赫萬

(기자 권경일)

# 乙未年 檢校公派 任員會議

검교공파중회(회장 권태강)는 2월 27일 오전 11시 상주시 공검면 화동리 연꽃 참찬우 식당에서 권춘식, 권영직, 권영해, 권오철 고문을 비롯해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신년 교례회 겸 임원회의를 가졌다.

권영호 총무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 파조 고려검교대장군에 망배 및 열선조, 순국선열에 묵념을 마치고 신년교례회를 겸해서 상음례를 하였다.

권태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각지에서 많이 참석해 고마움을 전하고 지난해 보여준 단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올해는 거대한 양 무리처럼 똘똘 뭉치라고 강조하였고, 권춘식 고문은 배움에는 때와 나이가 제한없으며 군자가 갖추어야 할 지성과 덕목에 대하여, 권무탁 수석부회장은 뒷사람이 빛나는 것은 아레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격려사가 있었다.

기타토의사항에서 권정수 부회장의 휘운(倫3세) 휘 응화(應和4세), 휘 공황(公晃5세), 휘 진부(珍夫6세), 휘 진평(進平7세), 휘 백서(伯壽8세), 휘 존각(楨恪9세), 휘 열(烈11세), 휘 수견(守堅12세), 휘 육(育13세) 이상의 선조께서 흔적이 없으니 안타깝다며 뿌리를 찾아 표석을 하고 잔을 올리도록 하자는 의견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권영해 고문이 시간을 갖고 후에 계속 논하기로 하였다.

또한 권태강 회장의 관복(제례복)을 구입하여 비치하고 행사 때 마음으로 장엄하게 행사를 거행함으로써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모두 찬성하고 회장단에 일임하였다.



△권태강 회장이 검교공파 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권정수 부회장이 중식비 일체를 협찬하고 권영호 여성부장이 손수 따끈한 떡을 빚어와서 나누어 먹음에 찬사를 보내고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송덕농원에서 제배한 새송이 버섯 한 상자씩 기쁨으로 나누어 갖고 회의를 마쳤다. <권영호 총무부장>

# 추밀공파 저계중회 정기총회

지난 2015년 2월 28일(토)에 안동권씨 추밀공파 저계중회(회장 권중달)가 인천 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음식점 갈비상에 서 개최되었다. 이날 참석한 인원은 32명으로 조상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새로 추밀공파회장에 선출된 권경석 대중원 사무총장과 추밀공파의 권영빈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이날 권중달 회장은 시대가 점점 도시화됨에 따라서 한 할아버지 자손이라도 서로 만나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교류가 적어져서 심한 경우에는 집에서 만나더라도 몰라보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에 중회는 이러한 모임을 많이 가져서 서로의 친목과 관계를 더욱 돈독

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중회의 활발한 활동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권경석 추밀공파 회장은 저(紱)자 할아버지는 태사공 후 17세로 위로는 충헌공 위(韃), 문정공 보(溥), 국재공 단(暉), 충정공 고(阜)로 이어지는 가계를 받들어 화목하고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이어받라고 하였다.

이어서 저계중원들도 추밀공파 중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대중원에서 발간하는 안동권씨중보와 추밀공파에서 발간하는 대중회보를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조상



△저계중중 정기총회(원내: 권중달회장)

들의 활동과 일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총회에서는 작년에 시작하여 마무리 하지 못한 김포시 양택리에 있는 안동권씨 추밀공파 저계 묘원(墓苑)을 단장하는 공사와 시제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지난해의 결산과 새해의 예산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마지막은 인기만료한 권중달 회장을 연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총무와 감사도 따라서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성료하였다.

# 副戶長公派宗會 任員會議



△부호장공파중회 임원회의를 하고 있다.

부호장공파중회(회장. 권오정)는 3월 23일 오전 10시 안동시 어가골길(태하동)

일원정(一源亭)에서 임원회의를 열었다. 부호장공파중회 권오군 총무의 사회로 <2015년도 신임임원 상견례(相見禮) 및 현안 6개 안건>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열띤 논의를 벌였다.

권오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장과 임원으로 뽑혀 오늘 모인 자리가 영광된 자리”라고 소개하고 “역대 회장들이 열심히 문중 일을 본 것처럼 나

도 시조님과 파조 할아버지를 열심히 모시겠다”고 말했다. 회장 인사말이 끝나자 임원들은 돌아가면서 일일이 자기소개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제례위원(祭禮委員) 선임 건은 정관(定款)에 삼입하고 세부 시행안은 별도 첨부해 놓기로 했으며 전, 답소유권 보전은 변호사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며 임기를 마친 직전회장에게 전달할 감사패 등은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부녀회 활성화 방안은 다음 주 다시 모여 토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타 토의 사항에서 현 사무실이 낡고 좁아 불편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앞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식대는 신임회장이 부담하였다. <보도부장 권영진>

# 僕射公派 婦女會 定期總會

복야공파부녀회(僕射公派婦女會 회장 : 권대란) 정기총회 및 칙사대회(勅賜大會)가 2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안동시 평화동 <청운식당>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권영애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묘소 및 파조단소 망배(望拜), 상음례(相揖禮), 회장인사, 신임회장단 인사, 회칙 개정, 감사보고,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대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여곡절(迂餘曲折) 끝에 회장을 맡은 후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 회원들은 서로 정을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걱정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웃음을 나누자고 당부했다.

신임회장단의 부회장, 감사, 총무가 단

단한 자기소개를 한 후 감사보고도 마쳤다. 이날 회칙개정에서 제10조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임시회 등 4가지 회의를 총회, 월례회, 임원회 3가지로 축소하고 제16조 <회계년도>는 5월 1일부터 익년(翌年) 4월 30일까지를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개정하고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회칙개정이 끝나고 권계동 복야공파중회장이 축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출타중이어서 권오의 사무국장이 대신하여 앞으로 서울에서 대중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녀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 3월 말이나 4월 초 선진지 시찰을 갈 계획이었으나 돈을 모아 내년에



△복야공파부녀회 정총(원내: 권대란회장의 인사)

선진지 시찰을 가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자 회원들은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권대란 회장이 가지고 온 떡과 꿀 등 푸짐한 음식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남부 두 팀으로 나누어 20명씩 한 팀이 되어 2시간에 걸친 칙사대회를 한 결과 북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회원들이 돌아갈 때는 화장지와 치약을 각 한통씩을 선물로 받고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진>

# 權宗甲 黃田獎學會 이사장,

# 後學 養成에 크게 기여

權宗甲 黃田獎學會 이사장(32世 檢校公派)은 1987년부터 부산종친회 6,7,10대 회장 역임 이후 명예회장,顧問으로 종친회의 든든한 支柱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4.5.25 부산종친회 38차 정기총회까지 286명의 모범 中,高,大學生들에게

73,400,000원의 獎學金을 수여하여 왔으며 92歲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權門 後學 養成을 위해 큰 족적을 남기겠다는 宗甲 고문의 인재육성 철학과 權吉相 회장의 종친회 사랑에 대한 강인한 집념을 전적으로 신뢰함이 맞물려 50,000,000원 이라



고문 및 天燈會 원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산종친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권승섭 사무국장>

는 宗甲 獎學金을 부산종친회에 기증함은 물론 왕성한 정신력으로 黃田 養老院을 사회에 기탁운영하고 있으며 종친회 고문의 인재육성 철학과 權吉相 회장의 종친회 사랑에 대한 강인한 집념을 전적으로 신뢰함이 맞물려 50,000,000원 이라

# 대사성공 수도(서울·경기) 종친회 제12차 정총



△제 12차 정총에서 권순표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사성공 諱 權 수도(서울·경기)종친회(회장 권오삼)는 지난 3월 14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동 현대코아 엘트컨벤션에서 2014년도 결산보고와 임원개선을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권승용 총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 및 파조단소에 대한 망배를 시작으로 총무의 경과보고 및 권영삼 감사보고를 하였고, 2014년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권오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총

회를 빛내기 위해 참석하신 종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수도 종친회는 조상에 대한 숭조의 도리를 다하고 뿌리를 알고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혼연일체가 되고 수도종친회에 배틀어 주고 도와주시 종친 여러분들과 강릉 종회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권순기 대사성공 중회장은 수도 종친회가 선조님들의 유지를 잘 받드는 계기가 되었는데 더욱 강릉 경포광경인 환선정(喚仙亭) 복원이 8월경에 건립이 된다고 말했다.

권영길 강릉 종친회장은 “종친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영가의 맥 책자를 발간을 하였는데 이 책은 보화상식 및 전통에 대한 내용으로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하였다.

권승용 고문은 보화강의를 통해 “안동에서 분파하여 서주공계 16세 직장공의 아드님 관광공은 강릉 대도호부 관관을 역임하실 때 강릉 산천이 아름답고 살기

좋아 이거려하다가 못하시고, 다음에 대사성공의 아드님 현령공이 아버지와 조부의 유지를 받들어 강릉부의 동쪽 옥가에 터전을 잡아 대대로 거주하였으며, 후손인 동지공과 학동공은 임진왜란 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고 군량미를 공급하였으며 덕을 많이 베풀어서 삼달존(三達尊)이라고 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으로 성동과 혁록이 고시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종친회 자리에서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임원개선은 권영만 임시의장이 진행하였다. 새로 선임된 권순표(權純杓 37세) 회장은 1934년 생으로 원주시청 공무원으로 30년간 봉직하다 퇴직, 수도종친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종친회 발전에 헌신하였다. 취임 인사에서 전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면 첫째, 관심과 참석을 당부하였고, 둘째, 친목과 우의 도모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임기동안 종친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많은 협조 당부를 드린다고 하였다. 총무는 권태갑(權泰甲 33세)이 선임되었다. <권승용>

# 복야공파 18世 參의公 (휘 恒)

# 正調禮 奉行

복야공파 18世 가일문증임항조 참의공(휘 恒) 정알례(正調禮)가 안동시 풍천면 가곡동에서 지난 정월 초 5일, 후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미년 정알례를 봉행하였다.

이어 참의공(휘 恒)의 묘소와 산하 묘소를 참배하고, 종손 등 19명은 조상묘소를 참배한 후 기타토의에서 년중 행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권혁세 기자>



△복야공파 18世(휘 恒)참의공 정알례(正調禮)를 봉행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 樞雲칼럼 總장공 도원수의 옛 집터를 보고

# 總장공 애국심을 되살리자

■ 樞雲 權海兆(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최근 총장공(忠莊公) 권을(權櫻) 도원수에 대해 여러 곳에서 회자(膾炙)되고 있다. 먼저 ‘안동권씨 종보’에 광주시청 북구청 김영현 문화관광과장의 ‘권을과 전라도 사람들’이 연재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KBS 주말연속극 대하드라마 ‘정비록(懲慈錄)’에도 총장공이 자주 등장하고, 중앙일보가 서울 종로 행촌동 권을장군의 옛 집터 탐구사(Dilkusha)를 보도해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총장공에 대한 나름대로 사적을 고찰을 해 왔다. 행주산성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행주서원 기공사(紀攻祠)와 양주시 장흥 묘소도 몇 번 찾았다. 그리고 행주산성 근처에 위치하여 수도권을 사수하는 권을사단과 임진왜란 직후 임시 도원수 진영이었던 ‘합천 권을도원수부 재현사업’ 현장도 방문하였다. 특히 이번엔 알려진 총장공 서울집터도 찾아보았다.



총장공은 1582년(선조15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1587년 전라도도사, 1591년 의주목사 등을 역임하고, 1593년 6월과 1596년 3월 두 차례 8도 도원수(헌 합참의장)에 임명되었다. 임진왜란 발발하자 전라순찰사로 금산 이치(梨峙) 전투, 수원 독산성(禿山城) 전투와 행주전투에서 대승했다. 그러나 충무공 이순신장군과 달리 강화도 가족이 소실된 탓인지 뚜렷한 기록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먼저 ‘권을과 전라도 사람들’에 보면 총장공이 임진왜란 발발 직후 1592년 4월 광주목사로 부임되어 광주사람과 인연이 시작되었으며, <다음호에 계속>